

서 평

도널드 워스터(Donald Worster) 지음, 『더스트 볼: 1930년대의 남부평원(Dust Bowl: The Southern Plains in the 1930s)』, Oxford University Press.(Oxford, 1979).

정 상 준

『자본론』에서 막스는 충분한 이윤의 전망이 보일 때 자본이 얼마나 대담한지에 대해 기술한다. 막스에 따르면, “10퍼센트의 확실한 이윤의 전망이 보이면 자본은 어느 곳이든 분명하게 동원된다. 20퍼센트일 경우에는 열의를 보일 것이다. 50퍼센트면 적극적인 대담성을 보일 것이다. 100퍼센트일 경우에는 인간의 범 가운데 자본이 짓밟지 않을 법이 없을 것이다. 300퍼센트일 경우에는 자본이 주저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범죄가 없을 것이며, 자본의 소유자가 교수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택하지 않을 위험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정서가 1930년대에 미국의 캔사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콜로라도, 뉴멕시코주를 포함하는 남부 평원에서 흙먼지폭풍(dust bowl)을 초래했다고 『더스트 볼』에서 도널드 워스터는 주장한다. 워스터의 주된 주장은 1930년대에 남부 평원지대를 휩쓴 더스트 볼이 대공황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본주의 문화의 산물이며, 이 문화는 대평원의 농경관행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천연재해와 경제적인 파탄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다고 워스터는 지적한다. 워스터의 주장에 의하면, 두 사건은 모두 가치체계, 경제질서, 사회체제 면에서 분명히 자본주의적인 미국문화의 결과였다. 지배문화의 가르침을 받은 미국의 농민들은 세가지 원리를 내면화했다. 그들은 자연이 경제적인 자산이고, 자신들이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위하여 자연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질서를 조직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 농업의 이러한 사업적 속성이 더스트 볼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라고 워스터는 제안한다.

워스터는 미국의 자본주의 문화가 더스트 볼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책을 구성한다. 이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는 더스트 볼의 3중적 이미지를 제시한다. 먼저 표면에는 가뭄과 흙먼지폭풍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다. 그것은 속성상 가시적이고 폭발적이며, 평원의 농민들이 즉각 인식하게 되는 대상이다. 이 표면적인 사건의 기저에 재난에 직면한 평원 농민들의 문화와 과학자와 정책수립자들의 성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패턴이 있다. 이것은 표층의 사건보다 천천히 변화한다. 그리고

가장 아래층에 대평원이 위치한다. 대평원은 그 패턴이 매우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간이나 우연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표층과 중간층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의 중요성이 사라진다. 워스터의 주된 관심은 중간층에 있다.

이 책의 제1부는 흠먼지폭풍의 규모와 극심한 정도, 그리고 이 환경의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술한다. 기후와 주간(州間) 이민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신문, 잡지, 개인적인 인터뷰, 사진 등에 나타나는 평원주민들의 보다 주관적인 기억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워스터는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악몽”으로서의 더스트 볼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리고나서 그는 작가, 가수, 사진작가, 영화제작자 등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농민, 사업가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공장농장(factory farm)이라는 새로운 상징을 환기시킨다.

제2부에서 워스터는 중생대로부터 시작하여 대평원의 지질학적 역사와 생태계, 그리고 그곳의 정착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토양의 형태, 기후, 식물, 동물, 인간의 등장 등을 기술한다. 워스터는 1900년대 초기 이후, 특히 세계 제1차대전 기간과 그 이후 “뗏장 파괴자(sodbuster)”들이 초원을 밀밭으로 전환하기 전에 어떻게 생태학적 균형이 유지되었는지 보여준다.

『더스트 볼』의 다음 부분들은 흠먼지폭풍의 충격하에서 사람들의 생활상과 사회의 모습, 그리고 제도적인 반응 등을 논의한다. 농촌 지역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하여 워스터는 오클라호마의 키마론 카운티(Cimarron County)와 캔사스의 하스켈 카운티(Haskell County)를 사례연구 지역으로 선택하여, 두곳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간직했던 전체와 믿음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더스트 볼 지역인 키마론 카운티에서 많은 주민들이 파산하여 정부의 구제를 받거나 그곳을 떠났으며, 마을 전체가 쇠퇴하고 황폐하게 변했다. 더스트 볼로 말미암아 농장 규모가 커지고 부채 소유자의 숫자가 증가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재난을 합리화하며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다. 하스켈은 최악의 충격을 받은 지역의 주변에 위치했지만 상황은 별로 나쁘지 않았다. 뿌리깊은 일확천금주의는 가뭄과 결합되어 이 지역의 사회구조를 와해시켰다. 상업적 농업의 압력과 대중문화의 조작하에서 공동체의식은 사라졌으며, 주민들은 몇가지 도덕적 규범들을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자기기만적 시도를 했다.

워스터는 인터뷰 자료와 연방, 주, 지방의 기록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키마론과 하스켈 두 카운티가 더스트 볼에 대응한 방식이 남부 평원지대의 전형적인 반응양식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나서 그는 연방정부의 토지사용 기획자, 생태학자, 농경제학자, 그리고 토양전문가들이 이 재난에 대처한 방식이 부적절했고 결국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워스터는 이들이 인간과 토지간의 관계에 대한 미국문화의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개혁에

는 실패했다. 위스터에 의하면, “문화적 개혁으로서의 생태계 보호(conservation)”는 평원지역의 문화가 전통적인 확장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돕는 경우에만 수용되었다.

그러나 상업적 농경의 생태학적 문제가 자본주의의 농업적 관행에 내재해있다는 위스터의 주장은 미국과 다른 사회체제와 미국의 농업적 관행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지 않을 경우 설득력이 약해진다. 요컨대, 자본주의 농업의 관행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예들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령 위스터는 1954년부터 1965년까지 소련에서 더스트 볼과 유사한 재난을 발견한다. 소련에서 1950년대에 처녀지를 파헤친 결과 1960년대에 대규모의 흫먼지폭풍이 발생했다. 위스터는 이 사건을 미국 자본주의 농업의 착취적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시한다. 즉, 미국적인 논리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채택될 만큼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스트 볼』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다른 체제의 사회보다 자원을 더욱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위험을 더 열성적으로 택하며 자제력이 더 부족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물론, 위스터는 자본주의 문화와 생태학적 재해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체제간의 자원 이용에 관한 보다 철저한 비교없이 그의 주장은 제한적인 타당성만 지니고 있을 따름이며, 그의 주장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탄탄한 역사적인 설명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위스터는 남부 평원의 농민들의 경험과 문화를 보다 넓은 미국문화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배적인 대중문화의 경향에서 농민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무시하지 않을 정도로 섬세한 면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구술역사의 인터뷰가 특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대체로 평원의 농민들은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지배적인 문화의 수동적인 수용자로 제시된다. 위스터의 설명에서 떠오르는 농민들의 집단적인 이미지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낙관적인 도박꾼과 환상적인 대중문화를 반성없이 소비하는 의식없는 모방자들의 이미지이다. 위스터는 대중문화를 소비자를 조작하고 대규모 시장을 창조하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정의 최종 단계”라고 파악한다. 그의 눈에는 “번쩍이는 검은 자동차의 행렬”은 대중문화가 농민들의 삶에 “침범”한 가장 최근의 증거일 따름이다. 그는 라디오 소리때문에 들리지 않게 된 여름밤의 “풀벌레와 개구리의 노래소리”에 향수를 느낀다. 그는 농민들을 대중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로 보기 때문에 농민들의 문화와 자본주의 체제가 농민들에게 부과된 대중문화를 동일시한다. 따라서 그는 하스켈 카운티의 농민들이 소비자 사회의 열매를 맛보고 싶어한다고 그들을 비난한다. 평원의 농민들은 또한 지배적인 자본주의의 정서에 도전하고 저항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는다. 평원의 농민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하여 위스터가 제시하는 그림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더욱더 사실에 근접한 그림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농장 규모, 정치적인 입장, 지역 등에 따라 농민들을 더욱 구체적

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일이다. 범주를 세분화하면 농민들과 그들의 문화들의 다양성에 대하여 더욱 정확한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무차별적 비난으로부터 그들의 문화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위스터는 하스켈 카운티의 메노파교도(Mennonite)들과 독립적인 농민들에게 공감을 보인다. 이들은 다른 농민들과는 달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계토지를 쟁기로 갈고 한 가지 현금작물에 노력을 집중하며 기계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스터는 대부분의 평원의 농민들에 대하여 도덕적인 심판을 내리지만 상업농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물론 역사가가 일련의 가치들을 비판할 때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나 의무는 없을 것이다. 역사가는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문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다. 위스터처럼 막시즘의 성향을 지닌 비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비판은, 만약 그것이 감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면 역사기술에 활력과 자극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스터는 『더스트 볼』에서 역사기술에서 사라져버린 자연을 다시 역사속으로 도입하여 비자연적으로 왜곡된 역사(unnatural history)를 통합적인 자연사(natural history)로 변형시킨다. 흔히 천연 재해로 여기는 흑먼지폭풍이라는 사건을 단지 자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지적, 농업적 맥락 등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이 사건을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비교 시각, 구술 역사, 계량화, 인구학, 소우주로서의 커뮤니티 연구, 사진과 지도의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설명에 깊이와 신뢰성을 더한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있지만 더스트 볼에 대한 위스터의 설명은 총체적인 역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상준, 서울대 영문과 교수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Tel. : 872-4390(H), 880-6112(O)